

聖句

주도 하나이오 길을
도 하나이오 세례도
하나이오 하나님도 하
나이시니 곧 관유의
아마지시라
예배소서 4:5, 6



10月1日(水)
1952年(昭和27年)
發行所
基督新報社
東京都千代田區
神田區藥師町2-4
振替口座東京182538
電話 神田(2)2623番
郵政發行人吳允 吉澤
主 華田榮

社說

피와 혼

이와나미서(岩波書店)에서 발행하는 잡지 세계(世界) 9월호에 「월트뉴스」 기자인 제1집씨가 쓴 글에 「남한의 위기」를 말하여, 전쟁문제보다도 커브의 부패의 일대속청, 여러가지 부정을 일소하지 않으면 회망이 없으리라고 하였다. 그 글을 읽는 우리는 부끄럽고 분해서 견딜수 없다. 그러나 저의 비평은 근거 없는 말이라고 할수도 없다. 최근에 본국에 다녀온 모실업가의 하는 말에 의하면 관제 당국자의 주머니를 볼수록 새와 주지 아니하면 어떤 기업체나 운영할수 없고 허가를 얻을수도

없다고 한다. 그리고 관리는 더구나 고관은 사리의 안정이 없어서 늘 불안중에 떨고 있는 것으로 그 지위를 위한 야심과 교제에 불 일을 못 볼 지경이라니, 그리고 국내에서나 외지에서나 종교계의 지도사들도 서로 혈고 서로 나쁜 사람이 라고 욕을 하는 모양이니, 이래가지고야 백성이 그 지도자들을 어찌 믿으며 어찌 나라가 될수 있으랴

★ 오직 돈 잡기와 오직 권세와 지위를 얻고 이를 보존하기 위해 급급하여 오직 음모, 모략, 중상, 아첨 시기, 분쟁이 있어

울뿐이오 의리 민족에도 동포에는 찾아 보기 어려우니, 셋날 이스라엘의 예언자 호세아가 자기의 민족이 음부와 같이 타락하고 망쳐진것을 새 각하여 애국한 말을 생각하게 된다.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선함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거짓과 살인과 도둑과 간음뿐이요 감포하여 이 피와 저피가 섞여 흐르는도다』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의 현실을 예언한 말씀이 아닌가 하여 지도자만 그러랴 일반 사회 민중의 전체가 그렇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것이다. 뒷물 이 흐리니 아랫물이 흐릴수밖 에 없고 나무밑둥이 썩었으니

우리의 가장 큰 근심은 현재의 우리의 부패가 아니오 이것이 앞으로 계속될것이 두렵다. 보라 청년들의 퇴폐한 생각과 타락한 행동을 「예라 무슨 짓을 하든지 돈버리나 해서 나한몸이나 살자」하는 태도를 보라. 이대로 나아간다면

全體的인慘狀

한국의 기독교는 百萬名이라 고하는데 그七割은長老敎徒이고 남은것이 감리교 성결교의 순서로 되어있다고 하였다. 그 장로교도의 七割은 공산정권인 북조선에서三八割을 넘어서는 사람이란데 부산에 百餘개소에 敎會당이 있다는것도 이런 피난민교회가 대부분이다. 일본 통치시엔 十六개소의 敎會당으로도 내내하였다 하니 현재의 전치하에 百여개소로 증가하였다는 사실은 그들의 회당중심의 열의있는 신앙을 가히 알 수 있을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많은 敎회가 전부 좋은 회당을 가진것은 아니다. 그 반수는 천막집회를 하는데 버가 본 평양교회는 七〇〇명가량 출석하였다. 이만 금식 모이는 敎회가 四十여개소에 있었다.

이번 전란후에 북선에서 남

和平統一의 努力은 最絶頂

民族相爭의 慘狀은 極境

국전군 통군기자로 한국전선에 半年間 있으면서 남한 각지를 순회하고 도라온 일본 공동통신기자 시시도(矢戸一)씨는 「日本基督教平和之會會員」 지난十九日에 시나고와 교회에서 열린 평화회 회에서 한국실정정보고 하였는데 한국기독교 文藝에 관하여 대략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하한 사람수는 六十萬名이나 되리라는데 그 五分之三은 기독교인자라 한다. 나는 그를 월남한 신도들을 만나 북조선공산정권하에서의 실재를 부러보았다.

北韓은 勞働黨全權

북조선에는 헌법에 신앙의 자유가 두텁이 기록되어 있으나 사실은 자유가 없다고 하였다

南韓靑年의 徹底한 非

여기서 알수있는것은 북조선 공산 정부와 한국정부가 하형 할일은 없다는 결론의 논점이 었다.

나는 한국 기독교청년들과 함께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다 저들은 평화(平和)적 해결에 는 절망적이고 도도히 세三次大戰이 일어나 해결이 온다고

신앙때문에 피전 압박하는 일은 거의 없으나 만 이유를 부쳐서 압박 당치 않게 하기 때문에 마음 놓고 살수 없으니 도주할수밖에 살길이 없었

니델라博士日本訪問?

도라방코아大會後일뚝

동부독일에 머물러 있으면서 모스코-방문 미국방문을 할뿐 아니라 전쟁없는 하나이 세계를 지향하고 나아가는 세계의 문제인물 목사말린 니델라 박사 가 아세아를 방문한다.

니델라박사는 금년 十二月에 인도 드라방코아에서 열리는 세계 기독교 청년대회에 참가 하게 되었다는데 이 기독교 청년 대회가 아세아 문제에 귀를 기울리자는데 중점이 있어 각국 기독교계에 깊은 연 구자가 교환되고 있는때에 니

출가와 가지와 앞이 다 마를 수 밖에 없다.

★ 슬프다 이것이 한 두사람의 일이 아니라 민족전체와 일이요, 하루이틀의 일이 아니오 五백년이래 내려온 슬픈 전통이오 해방이후로 다시 일어난 극히 더러운 바람이오 물질이 나 이것이 국민의 피가 더럽고 민족의 혼이 세운것이 아닌가

우리의 가장 큰 근심은 현재의 우리의 부패가 아니오 이것이 앞으로 계속될것이 두렵다. 보라 청년들의 퇴폐한 생각과 타락한 행동을 「예라 무슨 짓을 하든지 돈버리나 해서 나한몸이나 살자」하는 태도를 보라. 이대로 나아간다면

다 하고 하였다. 더욱이 북조선정 부관리로서 그리스도교 신앙을 배설수 없다고 하기에 북조선 기독교연맹이 있지 아니하다 물론 바 "그것은 허수아비와 같 은 조직이었다"고 하며 다시 말 하기를 북조선 노동당 (사실은 공산당) 맹원 외에는 반공산주의 단죄로 인정되고 있으니 노동당의 가맹하면 반공산주의 자로 몰리니 가맹할 것도 못된 다. 노동당에는 누구나 가맹되 는 것도 아니다 "고 하였다.

絶叫

共產主義紛碎

하였다. 심지어 말만 드러도 몸서리치는 原子彈이 떨어지도 이렇게 사는 것보다 그 결과는 나으리라고 까지 말하는 젊은 이들도 있었다.

他山之石的教訓

산(汝山)에서 알게된 북조선 문기자의 말은 평양등은 전 멜라카사의 참가는 더욱 주목 을 끌고 있다. 이 여정(旅程)을 알게된 일본 기독교자평화회에서 일마 전에 나멜라목사에게 인도에 왔 다가 일본에까지와 달라고 초청한바 최근 그의 회답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도착되었다 나도 일본에 가볼 생각이 간절하다 내 여행권이 문제 없이 허가되면 도라방코아에 서 일본에 가겠다.

우리 민족은 쇠멸할길 밖에 없 을 것이다. 더럽힌 피를 깨끗이 하자. 색어진 혼을 살리라 피가 더럽고 혼이 색어냄새나면 죽으 나 마친가이다. 다 색었다고 낙심하지 말고 말까지 색었다고 실망하지 말고 나부터 깨끗히 살고 나부 더 혼을 새롭게 하자 색은 나무에서도 새송과 새색이 하 나씩하나씩 나오면 다시 소생 할 도리가 있다. 지도자들부터 먼저 종교하고 평생의 길을 걸 어 한줄기 맑은물이 생기면 전세를 맑힐수 있다. 그리고 하 나님은 죽은 나무도 살릴수 있 다.

말이고 시민은 지하에서 산다 고 하였다. 휴전회담의 장소인 문산도 전에는 자그만한 도시 였으나 황폐무인지경이다. 한국 인에게는 휴전에 기대도 없고 그 성과에 대하여 희망도 두

信仰自由를彈壓하는伊太利 그리스도의教會不法閉鎖

국립의 九十九퍼센트가 개 물리신도인 이태리(伊太利)에 서 미국선교회의 보조로 전도 하는 처(처, 오후, 크라이스트 (그리스도의교회)가 전도 활동 금지를 받았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 十四일 (主日) 일이다. 마치칸의 성배 드로 성당 가까이에 있는 미 국선교사 그린(Griffin)가 경찰 의 경고를 들지 않고 주일에배 을 보기 위하여 정치장소 문을 열었다는에서 부터다. 이래리 공화국헌법에 인론 정치 신교의자유가 보장되어있 으나 한편에는 못소리니 시대 의 종교통제법이 철재 안된데 화근이 있었다.

한편 선교사는 제2차대전후 미국 텍사스주교향 교회에서의 선교비로 로마시의 일각에 아원들 세우고 전제교아를 수 용하는 한편 이래리각지에 二十二개소에 교회를 세우는등 적극적인 전도의결과 七년간에 약 千名の 개종리신도를 선교 에 개종(改宗)시킨바 신교에 대한(新敎)적대시는 이래리 에서 뻗은신교사를 쫓아내려고

지아니한다. 더욱이 신앙을 가 치하는 한국정부는 이들의 환영절 인 말에는 이웃나라에 살고있 는 우리로서 크게 경멸할 문 제가 있다고 본다.

三년간의 여행전에 연거거가 도 하지못하도록 하려한다. 개종자(改宗者) 千여명이나 낸 사실에 비추어 당국자들도 마치칸에 체면문제도 있기때문 에 뻗은신교사에게 전도활동을 제한하기를 경고한것이다. 이경 고에 대하여 뻗은신교사는 이 래리 내무장관에게 신앙의 자유 가 보장된이상 배는 존속하 겠다"고 당신을 변명이다. 十四日(主日) 오전 아종시 선교사가 교회문(敎會門)을 열자 정복관과 二名이 교회동루 를 막아섰다. 이렇게되어 말성 이 이니 경비차(警備自動車)에 형사를 끼인 경관 二十여 명이 둘러서서 거리의 동행가 시 제한하여 이날 예배는 못 보고 말았다. 이래리당국은 이 교회를 폐 쇄하고 사실상 전도금지하 하 었을뿐만 아니라 지방二十二개 소의 교회에도 폐쇄를 명하였 다. 이 사실에 불만을 뻗은신 교사는 헌법위반이라고 술회하 고 이래리주차 미국대사관에 선처(善處)를 요망하는데 이

十月五日世界共通 萬國聖餐日에對備

오는十月五日(十月 첫주일)은 「세계 성찬주일」로 지킨다. 이 일은 지금부터 十二년 전 즉一九四〇년에 미국에서 시작 한 것에 유래한다. 오늘날은 세계각국 교회들이 참가하여 각국 각 민족의 방언으로 지 키게 되었다. 모든 민족이 그 리스도의 고난을 명상하며 국 경을 초월한 우애증강(友愛增強) 의 기회로 삼는다는것은 더욱 의의 깊은 일이다.

△十月 첫주일을 세계적 성찬 주일로 지키기 시작한것도 금년으로 十三년째다. 그동안 이날의 의의를 이해하고 참 가하는 나라가 점점 많아졌 다. △세계성찬주일에 성찬에 참석 함으로 거룩한 주안에 한해 제의 우의와 성도의교제를 경험하게 되는것이다. △세계성찬일에는 특별히 연합 집회를 할 필요는 없다. 각

이와같은 방법으로 이래리당 국은 한달전에도 침례교회집회 를 정지시켜서 시권을이 있어 점차 국제문제로 되고있다고 의국통신원이 보도하고있다.

보부復興師訪日



보부 부총사

미국 현대 부총사로 이름난 보부, 존스박사는 일본을 방문 한다. 박사는 남 태평양이나주 슌스대학 총장의 중역이면서 미국 각지방을 순회전도하는 열정적 부총사다. 일본에는 十月五日부터 九일까지 체류하리 라한다.

會員資格緩和要請 關東地方會決議

관동지방회는 지난十八일에 주요하시(淺草) 교회당에서 제 二회 정기총회를 개최하였다. 회장 박명준(大垣敎會) 목사 사회로 개최하여 제八회 제일 본 대한기독교총회에 헌의할의 안을 도의한바 관동지방회로서 독후한 안건은 「총회원자격에 독자와장소에 국한된것을 감도 사와 전도사에게도 해당 시키 게 하자는것과 전도사 감도사 에게 당회참가 자격을 부여하 자는」문제였다. 금년도의신임임원파 그 부서

△세계각국 NCO는 이 성일 을 뜻 있게 지하도록 각파 교직들에게 전문준비한다. △같은날 각교파교회를 망라하 여 이 성찬을 직접은 그리 스도인의 정신적 일락을 요 이 인식하게되며 에큐메니칼 운동의 실정을 알게될것이다 △주의 십자가를 앞두고 당하 시던 만천상적 가음을 성찬 에서 영감되고 같은 성도를 이 거룩한 교제를 하는 기 회임을 알게될때 은혜가 충 만 할것이다.(NCO)

人事

△朴命復牧師 關東地方會長手任 由永福牧師 關西地方會長被任



★ 나는 요새 본 국에서 오는 편지가운데서 이런 것들을 한 장 받았다. 서 해안 어떤 섬 에서 일하는 젊은이들의편지다

★ 「여기는 외로운 섬이다. 본 로를 멀리 떠난 절해고도(絶海孤島)이다. 조국을 지키는 국방군은 물때문에 또 음식으 로써 고생한다. 고생하는 피난민도 많습나다. 저도 여기 서 교육과 고생을 느끼지않는 바가 아니라 그들과 같이 지 내며 힘써 국군의 위로가 되 는 일을 하는 가운데 알수없 는 기쁨을 느낀다.」 이 글은 국군분반 아니라 피난민도 도으며 같이 고생하 고 지내는 중성원 일꾼이다. 나는 이 편지를 읽고 고마운 감격을 금치못하였다.

★ 안 된 조건만 생각하면 나 심이 천것이지만 또 희망의 일편을 보면 용기가 생긴다. 예수께서는 베풀었듯이와 물고 기 두마리를 가지고 五천명을 먹이셨으나 이때에 제자들은 은 많고 돈은 없고: 「안될 조건만 생각하여 할수없다고 하 었다. ★ 이제 우리는 암흑연만 보지 말고 광명만을 보고 희망 으로살자 이제 우리는 우리 교회나 나라의 어려운문제나 의학상 안을들추어 말도 말자 좋은방 면만보고 명암한 이야기만하자 본지에도 이제부터 협서 광명 면을 소개하려고한다. (C記)

韓國에 福音敎會發足

嬰兒·孤兒事業을兼하야

黃聖澤宣敎師本部에 報告

미국 북음교회 선교사로 조국에 전도하려왔던 황성택목사(黃聖澤牧師)는 반년간 현지에서 활동하고 실재적인 개회서를 작성하여 안고 지난二十五일 하 아메리칸 항공기로 선교본부로 왔다.

황목사가 한국인이면서 북음교회 선교사로 한국을 선교지로서 택하게된것은 북음교회의

무차별한 선교정신을 엿볼수도 있는데 그 사유는 다음과 같다 미국북음교회는 四十여년전부터 중국선교에 주력하여오던바 공산치하에 그 선교사업들을 계속할수없게 됨에 한국선교를 개회하였고 선교사와 직원들을 양성하려 하였다. 그러나 한국

이 동란으로 남았다. 비록하의 저장을 발간할수없다하여 동교 파괴에 소속한 황성택목사에게 정하여 선교사로 파송하였던것이다.

황목사는 동란일기전에 도서를 동소운 함에 와서 영아구제보육(嬰孩救濟事業)을 한 일이 있었으나 공산군의 침입시에 배수경전으로 일단 미국에 갔다가 지난四月에 북음교회선교사로 부산에서 서면에 고아와 영아구제보육사업을 시작하였던것이다.

현재 부산지역에는 약三十명

桑名敎會信徒들의熱誠

七年間은 은히長成發展

미에정(三重縣) 구와나시(桑名市)에 동포의 교회가 있다 현재 남녀 二十여명이 주일마다 모인다 대표자 안종석씨의 설명에 의하면 이 곳에 동포를 위한 집회가 시작된것은 약 二十년전 일이라 한다.

회당을 세우고 한때는 百여 명신도가 모이고 장로 五명 집사五명 세례교인 六十명쯤 있었고 목사도 있던 큰 교회였다고 한다.

일본이 패하는 전쟁 말기에 회당은 불타고 신도는 흐트러져 종전 될때에도 거이 없었다. 조국 광복을 반가워 귀국하는이들까지 간후로는 모이는 이도 없었으나 근처 유가이

(四日市) 도미다하마(富田溪)에 미도-잇은 성서교회에 합석하는 동포들이 선교사 휴-앨선생의 후원으로 구와나에 조선인연맹 건물을 구입하고 일본인들과 함께 모이게된것이 해방뒤후의 곳 집회이 시작이었다.

재 자년에는 한국 전란으로 모든 선교사들이 일본에 피난 갈때 래머시여사와 부산 고려고등성경학원에서 가르치던 헨선 여사가 이 지방에 머물러 오늘날 까지 전도에 힘쓰고 교회집회를 도와주기 때문에 신도는 점점 증세를 보이며 간다고 한다.

이 지방(三重縣內)에 교포

수는 八千五百가량이란데 구와나에 二千명의 있다고 추측한다. 주일 학교에는 구와나에 四十여명이 출석한다는 데 교사의 역량만 있으면 화평하고 오리라하며 은 교회는 힘 있는 발전에 기대를 갖고 주일학교 외에 매주 목요일에

神學을目的하고

金熙振講

관서지방회 신기부라 전도교회(關西地方會新機村福音敎會)



김희진 씨

순천, 완도등 二十개소 도시에 시정년회가 조직되어 영 지, 체(靈知體)의 조각운동이 색색하게 전개되고있다.

이 모든 지방의 중심체인 대한 Y M C A 연합회는 다음과 같은 멤버가 실행위원으로 활약하고있다.

회장 이용설 박사 부회장 유형기 박사 서기 서병호 장로 회계 이원철 박사이며 위원은로는 홍병선목사 김우현목사 김우종목사 장명원 이호빈목사 등 제씨다.

이외에 각부에 위원이 따로 조직되어있다. 현재 총무는 이환선목사이며 협동총무는 미국 Y에서 파견된 코스톤씨다. 그리고 해방후 한국Y의 재건과

발전에 위대한 역할을 하여 공적을 세운 조-지·필립박사는 미국에 도라간이래로 한국 원조운동을 전개하는 한편 미국사회에 한국을 소개하는 일에 부심하고 있다

해방이래로 총무과 발전의 일로를 걷고 있던 대한Y가 六,二五동란에서 심대한 타격을 받았으나 「폐허 위에서 새생명」을 움지킨다」는 슬로건과 같이 두번이나 피란을 당하면서 전사사업을 하여 많은 효과와 공헌을 하였는데 그 전모를 요약하여 소개한다

一九五〇년 六,二五 당시 제-차 부산피란시에는 이용설 배남훈씨가 위원장이 되어 대한 Y M C A 연합회 전시 위원회를 조직하고 유치 피란민숙

動亂下의大韓Y動態

在日韓國Y 朴永昌

전편에서 소개한 서울중앙Y와 대전, 인천, 경주, 부산등의 대도시 Y 이외에 대구Y는 십로 중앙Y에 버금가는 우수한 Y M C A이다. 현재 회장은 고영간 씨이며 총무는 이원우목사다. 一九一二년의 창립으로

四十年의 역사가 있다. 현재의 건물은 三四九평 기지에 건평 一六〇평 되는 회관이다. 十六명의 이사와 三百명의 정회원 二백명의 준회원을 가지고 있다. 이외에도 광주는 정회원 一四五명 준회원 三五〇명이며 이사 十五명이며 회장은 백영홍씨이며 총무는 김윤식씨이다 목포Y는 회장 송남득씨 총무 이웅씨 정회원 二五〇명 준회원 一五〇명 이사 十五명이라

는 큰시정년회로 강력한 활동을 하고있다.

이밖에도 김천, 군산, 밀양, 전주, 마산, 거제, 여수, 진주, 제주, 진해, 함평, 춘천, 해남,



박영창 씨

전편에서 소개한 서울중앙Y와 대전, 인천, 경주, 부산등의 대도시 Y 이외에 대구Y는 십로 중앙Y에 버금가는 우수한 Y M C A이다. 현재 회장은 고영간 씨이며 총무는 이원우목사다. 一九一二년의 창립으로

四十年의 역사가 있다. 현재의 건물은 三四九평 기지에 건평 一六〇평 되는 회관이다. 十六명의 이사와 三百명의 정회원 二백명의 준회원을 가지고 있다. 이외에도 광주는 정회원 一四五명 준회원 三五〇명이며 이사 十五명이며 회장은 백영홍씨이며 총무는 김윤식씨이다 목포Y는 회장 송남득씨 총무 이웅씨 정회원 二五〇명 준회원 一五〇명 이사 十五명이라

는 큰시정년회로 강력한 활동을 하고있다.

이밖에도 김천, 군산, 밀양, 전주, 마산, 거제, 여수, 진주, 제주, 진해, 함평, 춘천, 해남,

(3)

는 신도들의 가점을 번가랴가 금번에 도미(渡米)하게 되었
며 전도를 아울러 기도하고있다. 다. 써는 앞으로 신학(神學)

같이 말하였다.

서는 일본 성서신학교(日本聖書神學校)를 지난봄에 졸업하고 그리스도신앙에 들어서기에 인연 되었던 신기전도소에 봉사하게 되었으며 미국 갈니포에 미친숙부의 호의로 본교포와 교회앞에 행복과

그리고 수도서울이 재차 정 부적으로는 Y간부화. 지도자양
령을 당하자 두번째 부산에 성이 급무였음으로 Y M C A 전
다시 남하한 Y 연합회는 부산 문학원을 부산에 개교하고 별
에서 대한 Y 전시대책위원회를 서 제 1회총업생을 122명이나
조직하고 서병호씨를 위원장으로 내고있는 사실이다. 이렇게 다
로 김우중 목사를 부위원장에서 단해지면서도 연합회 간사

모시고 귀해공군 겸찰병헌 김처목사를 미국에 파견하여
포로수용소 귀환장정수용소 학 노사업을 시찰연구케 된것은
교동에 위문파 전도사업을 함 줄라운일이며 금후로도 해마다
범위로 지방일반범법에까지 편 두사람서 도미시킬 것이라함은
지외 위문품을 보내고 영화반 앞으로 유능한 간사들 중평케
연구단 무용단을 파송하는일을 함을 알고 희망의 전도를 축
하며 위안도 하였거니와 전도 하하며 이 소개를 붙인다.

발전이 있기들 바라 마지않습니다。

재일본 한국기독교 청년회에
서는 지난二十三日 第十六回
회를 동회관강당에서 개최하였
다.

정회원 八十五명이 있으나
일본간지예 산재하여 참석자는
二十명에 불과하였고 위임장을
보낸 회원十二명이었다.

이사장 이대위(李大偉)씨의
사회로 회원 三分之一以上으로

성회됨을 선언하였으나 신임회
원 자격심사에 약간의 물의가
있었다.

이정열 추무의 사업경과보고
를 수리하고 이사(理事)－선출
에 드러 왔는데 현재까지의
七名の 이사제를 사업발전
을 위하여 일약 十三명으로 증
하기로 하고 동경 거주자 十
一名 나고야, 교－도 지방에서
각一名씩 선출하게 하고 투표한
바 다음의 제씨가 선출되었다
이대위, 전영래, 양학만, 김기
철, 강종구, 한현상, 경홍기, 김
옥남, 오진영, 장두천, 김한필

현의안에 있어서는 고문제도
등에 관한 현법에 약간 수정이
있으나 현재까지의 미정리의문
제는 신임이사회에 일임키로
하고 내시간에 김천 총회는
폐회 하였다.

知府劉子平 知府吳

[illegible]

國際學生研究會에서

西南學院
朴海琪



(3) 민족주의와 평화운동과의 동
연한 문제였다.

一般的結論

호 1교배. 니시노미야 호 1교배 여학원 (兵庫縣西宮市神戸女學 에서 모인 세이날)은 미국 푸랜드파에서 주최한 것이 었는 데 아시아사람이 그들은 기독교 평화운동을 주장 하여 오는 교파로 더욱히 제2차 대전이 점진되기도 전에 제3차 전쟁 이 논의되고 있는 오늘날에 한 다운 평화를 어떻게하면 이제 개에 실현 존속 시킬수 있는냐 하는것이 주회족의목안이였다.	참가자는 일본인 二十六명을 포함하여 미국인十四명 한국인 六명 다음은 중국인과 미출된 사람은 각一명씩으로 전원은 四十八명이 었고 그중 여자가 十七명 었다. (米五, 日十二)	이런회합의 중심파에는 (아메 세대의 여성을 포함한다.)
제2차 세계대전의 종전은 출전이 아니라 정치권만으로도 아세아에서는 더욱 중요한 변 동을 계속하고 었다. 중공이 본토전반을 제압한것을 비롯하 여 인도, 필리핀, 말레이, 말 이등의 독립과 인도네시아에 도난중에 있어서의 해방운동은 이 모다 아세아인족주의의 화 고 었다. 이 모든 아세아적 동맹은 제국일본이 제압할수 없었다. 이 운동은 그라 어떤 한 련리나 무력으로 제압할수 없는 상태에 었다. 이 운동은 외부적으로는 반제국주의 민족 형성이 되고 내부에 었어서는 외국세력과 밀착하는 불간착적 잠존세력과 싸우는 형명으로 나타나고 었다. 이 세력은 새	제2차 세계대전의 종전은 출전이 아니라 정치권만으로도 아세아에서는 더욱 중요한 변 동을 계속하고 었다. 중공이 본토전반을 제압한것을 비롯하 여 인도, 필리핀, 말레이, 말 이등의 독립과 인도네시아에 도난중에 있어서의 해방운동은 이 모다 아세아인족주의의 화 고 었다. 이 모든 아세아적 동맹은 제국일본이 제압할수 없었다. 이 운동은 그라 어떤 한 련리나 무력으로 제압할수 없는 상태에 었다. 이 운동은 외부적으로는 반제국주의 민족 형성이 되고 내부에 었어서는 외국세력과 밀착하는 불간착적 잠존세력과 싸우는 형명으로 나타나고 었다. 이 세력은 새	제2차 세계대전의 종전은 출전이 아니라 정치권만으로도 아세아에서는 더욱 중요한 변 동을 계속하고 었다. 중공이 본토전반을 제압한것을 비롯하 여 인도, 필리핀, 말레이, 말 이등의 독립과 인도네시아에 도난중에 있어서의 해방운동은 이 모다 아세아인족주의의 화 고 었다. 이 모든 아세아적 동맹은 제국일본이 제압할수 없었다. 이 운동은 그라 어떤 한 련리나 무력으로 제압할수 없는 상태에 었다. 이 운동은 외부적으로는 반제국주의 민족 형성이 되고 내부에 었어서는 외국세력과 밀착하는 불간착적 잠존세력과 싸우는 형명으로 나타나고 었다. 이 세력은 새

이렇게 두주간이나
논의된

제물을 종함한다면
土 민족주의의 단 무엇이나?
(二) 아세아의 발전문제
(三) 아세아 민족운동의 현상
해방운동으로 발전한 아세아
아 민족운동
(四) 아세아 경제문제와 민족주의
운동에 관한문제

3
출동이 일기 신문 외국인
과 전식을 합치하며 이근로
환을하고 사회현상을 논리한
좋은기회였다。



說教

三種의審判

牧師 金昌根

오늘날 인간들은 현실문제에 만 치중하여 만사는 현실에서 만 해결할것으로 연결하고 있는 것이다.

이같은 근시안적 인간들의 정치 경제 사회운영에 현실성이 있을가 진실성 없는 그 사회가 신임을 받을수 있을가 우리는 이와같은 현실을 생각하면서 본분에 따라 하나님과 말씀을 들어보기로 하자

본 二十五장을 읽으면 뚜렷한 세가지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이 전체의 의미는 『하나님의심판』에 관한 설명이다. 다시 말하면 인간들은 의식하건 말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끝날에 심판을 하신다고 하시는 것이다.

이 심판이라는 사실이 있을것을 생각할때 비로소 인간들의 생활에 진실한생각과 진실한 행동이 있는것이다. 혹자들은 믿지 않을지 모르나 신약에만 해도 『심판』이라는 말은 三十八회나 명확히 기록되어 있으니 무시할수없는 사실인것이다. 이 말씀은 믿는 자야 있건 없건 오실이는 오실 것이 분명한것이다.

△우리 기록자는 이런 말씀의 기록되어 있는대로 믿는 성서



敎會學校敎師講座

指導의根本問題 (10)

魯安理

어떤 초등부에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주제를 공부하였다. 그것은 예언대 음식, 물, 새, 꽃, 가정(家庭) 등의 문제를 하나 하나의 선물로 취급한 것이었다. 선생은 이렇게 하는 것이 동화 같은 이야기기를 많이 들려 주는 것보다 더 좋으리라고 생각하였다. 그 꽃에 관하여 지식을 많이 가진 사람과 새에 관하여 많은 지식을 가진 사람을 애써 구했다. 시(市)의 사회국에서 좋은 그림도 몇장 구하였다. 선생은

모든것을 자기의 어린 학생들의 입장에서 볼려고 노력하였다. 그래서 이것으로 어린이들의 생활을 풍부하게 하려는 것이었다. 이 기회에 하나님과 그가 창조하신 이 아름다운 세계를 생생하게 알려 주자는 계획이었다. 그곳은 시골이었으나 제일 처음엔 물에 대한 문답으로 시작되었다. 그 대화는 꽤 성공이었다. 그 용도 가령, 랍치는 일, 음료, 세탁, 스캐팅에 대한 물의 역할을 생각하였던것이다. 그리고 이

량보다 최선을 다 하였느냐 하는데 심판의 초점을 둔다는 것을 여기에 가르친것이다.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하여 볼 일이다. 나는 금을 말았는데 은을 말았는데 그 말은 일의 충성하고 있는가 세상에는 요사한 실업자가 많으나 하나님의 열매에는 실업이 없을만하다. 그러나 열매가 부족하다. 오해하지 말고 더 남도록 하여라. 파도막 심판관인 주인을 즐겁게 하도록 할것만 생각 할것이다.

나를 위해서 파도막 심판관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구별하시겠다는 말씀인데 주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심판은 면할수 없는 말씀이다. 또 그들의 행한것을 보아 판정 하시겠다는 의미가 있다. 이웃과 행인과 편전하고 믿는 자를 속은 자와 믿지 않고 구제 하였느냐 하는 문제가 그날에 분명히 나타날것이다. 우리 주위에 이런 공물과 동정과 구제를 바라는 자가 그 얼마인가. 우리는 혼란하고 곤란한 오해를 차하여 이 위임있는 심판을 생각하고 경성하며 진실히 살도록 하여야 할것이다.

傳道欄

信仰의勸告

(2)

우리의 신앙의 사표가 되시는 예수께서 마지막에 십자가형을 앞에두고 많은 제자들이 다 흐느끼려고 할때 『너이를 나를 혼자 두고 다 끌어져 갈지라도 내가 혼자 있는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리라』 하고 조용히 죽음에 나아가셨읍니다. 그리고 저가 최후로 제자들에게 약속하신말씀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같이 있으리라』 하셨습니다. 정의와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세계를 지배하시니 우리는 아무런 두려움이 없이 오직 믿음을 가지고

안심으로 살수 있습니다. 엄청난 아버지는 자식을 사랑하며 감동과 기쁨으로 주시는 것과 같이 의와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므로 때로는 고난과 시련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을 믿는 이상에 좋거나 없거나 오직 믿음으로 선택하게 될것입니다. 『아버지가 저희는 자식을 잊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저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시는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여, 우리의 살아가는 모양을 곰곰히 생각하면 온전히 양자의 노릇이요

게귀중한 물이 어떻게 생기는가 다음 문제였다. 샘, 웅덩이, 수도 펌프 같은 것이 생각되었다. 선생이 가지고 있는 한 잔지 같은것에서 물에 관계되는 그림을 수집하였다. 호수, 대해, 시냇물, 여름 그리고 새나 짐승 혹은 사람들이 물을 마시고 있는 그림, 비가 내리는 광경, 꽃에 물주는 모양의 그림 등. 또 동부들은 하나님의 주시는 이 소중한 물을 농업에 없어서 안되는것으로 사용할수 있다는지 혹은 우리는 서로 협력하여 이것을 공동으로 사용하는것임을 잘 알게 되었다. 그런데 하나님은 물을 주신다. 하여 주전자나 잔에 부어 놓는 일까지 하나님이 하는 것이 아니니 이번에는 물에 관

하여 우리 사람의 할 방면이 생각될 필요가 있었다. 남에게 물을 공급하는것은 사람이 할 일인데 이것을 어떻게 할수 있을까에 대하여 생각하였다. 그리고 또 성서에 예수께서 우물가의 한 외국 여성에게서 물 한독음을 얻어 마시시고 물 한잔을 기원으로 요은 진리의 말씀을 하신 사실에 대한 공부도 겸하여 하였다. 이 와 같이 하는 동안 어린이들은 물에 대한 그림, 공장(工廠)을 만들기에 시간의 부족을 느끼지 않을수 없었던것이 다. 마침내 그들은 그림을 한 곳에 모아서 한권의 책을 만들 작정을 세웠던 것이다. 그 다음에는 꽃과 새의 지식을 연구하는 계단이였다. 전문

音樂家外老兵

그에게는 다시 이러날 용기
없었다. 아츰도 굶었거니와

비극의 장면이 오 지옥과 패망
의 길입니다 어느 한가지
는 한 모루가 착설하고
흔고 귀엽고 희망이 보이는데
가 있습니다. 우리 개인도
평거니와 나라형편은 더욱
쉽습니다.

모든 사람이 나라생각은
니하고 오직 제욕심을 채우려
고 하니 어찌 나라일이 될수 있
으랴. 좋은이와 판리나 군인이
나 일한 국민을 물론하고 모
두가 오직 사기와 협잡과

적정을 일삼으면 어찌 나라가
 되겠음이나. 나라와 민족의 사
 람을 애고 나갈 남녀 청년들을
 비판하고 원망하여 실망을 한
 끝에 원망하고 자포자기하여
 오직 타락과 방종으로 자살적
 생활을하는 정형을 보십시오.
 과연 저들과 우리의 앞길이

가들 표실에 청하여 설명을
들었다. 어린이들은
문을 말하였다. 그리고 다시
산야를 헤매면서 새꽃 새새를
을 찾아 다녔다.

이 연구들 일관하여 그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과의
력, 이 뜻을 돕는 일들에
위대한 교향악 같이 배어
코 있음을 경험하였던 것이다.
동화들 의우게 하거나 의미

모르면서 쓰크랏 복을 만드느
일들과 비교하면 몇배나 더
가치 있는 일이었다. 이 기
쁜 할부로 말미암아 어린이들
은 많은 지식을 얻었고 그
밖에도 그들의 흥미와 태도의
향상과 과학생활의 내외면에
다른 영향을 받았다.

저녁 양식도 없는 처지였다.
바로 그때 이 늙은이 앞을 지나가려던 신사 한 분이 없었어 주저앉은 늙은이에게 보코를 손에
「여보 당신은 늙어서 약이 필요
은 가졌으니까 처방하는 건데
그걸 내게 빌려주세요」
하더니 그걸에 서서 영감을
기가 막히게 권한다. 지나가던 사
람들이 그 주위에 돌
러서서 묻는다. 약이 리니스의
눈빛에 따라 늙은이들은 자기

찰담하지 아니합니까.

사람하는 형제 자매며, 이월
게 나라가 부패하고 어지럽
잡담하여 장래가 근심스러운
것을 어찌럽니까. 싶이 생각하
여 그 근본원인을 궁구해 보
면 모든 사람이 하나됨을 떠
나서 마치 부모를 떠난 랑차
와 같이 패망의 길을 걷고
있기 때문예요. 아버지 어머니
의 품을 잃고 불행한 고아의
생애를 보내고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깨닫르십시오.

자아! 이제 마음을 고쳐먹고
활길을 도리켜서 하나님께로
돌아갑시다. 예수께로 나오십시오.
오. 그리고 과거를 청산하고
새로운 생애로 들어갑시다. 새
사람이 되고 신앙의 사람이 되어
재생의길 회망과 축복의 길을
가시기를 간절히 권하는바입니다.

성경말씀에 『주 예수를 믿으
라 그리하면 너와 너의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였읍니다.
우리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
께로 돌아와서 새 사람이 되

기만 하면 그 집은 따라서
행복된 가정이 될 것이오 그나
라와 그 사회도 스스로 깨끗
하고 아름답고 희망이 있는
국가 사회가 될 것입니다. 사람하
는 형제 자매여, 같이 힘써

성하여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 오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바입니다.
이 글을 읽으시는 사랑하는 독
자 형제 자매여 나는 우리나라
라와 독자 개인의 현재와将来
를 염려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이 편지치 못한 글을 보냅니다

는 동안, 新學派의 主張에
 몇번인가 돈이 가득하더라
 하오리니스트는 그제야 마코
 님을 新學派에게 물리치고
 말없이 사라져 버렸다. 청춘은
 「저사람 누구냐」하면서 손가락
 했다. 그때 한사람의 「저 마코
 리니스트는 유일한 문학」이라
 하였다. 그는 음악에만 유능한
 뿐더러 동정심이 많은 사람이었
 다. (참고 이사야 五十三장)

一 폭적으로나 홍망이 달린 종대

한 끝대상에 처해 있습니다.
여러가지 걱정되는일이 많고
늘 불안에 싸여있는 형편이니
다.

보십시오 신준지상에 매일법
외사건이 이삼건은 나고 ~~정~~은
여인이 제자식 뇌출죽이고 자
살을 한다는 요새 우리네정형
은 아무래도 큰일난 세상입니
다. 인물이나 재주로나 남만
못하지아니한 우리가 왜 이렇
게 못살고 왜 이 지경이 되

있음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것이 마음문제입니다. 마음
이 잘못되고 마음에 병이 들
까닭입니다. 우선 독자 스스로
가만이 내 마음을 도라보시라
그리고 지금까지 지내온 일을
같이 반성하면서 이미 읽으신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시

그때서 새로운 깨다름을 얻고
앞길에 새 방향을 찾으신다면
나로서는 평생에 이글을 쓴
보람이 있고 큰 영광이 되겠
고 확실히 독자에게도 복이 될
줄 믿는바입니다。

日本傳道에 獻身한
美國靑年들
일본전도에 불타는 미국청년
二十여명이 대표로서 九月中에

일본에 부임한다. 저들은 미국 전문학교 졸업후 준비교육을 받고 三年간 일본에서 전도하고 다시 귀국하여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될 젊은이들이다. 금년에 오는 그들중에는 남자十二명 여자十三명인데 저들은 주로 기독교주의학교에서 영어

教會各團體與一般團體

牧師 李鐘聲

교회에 자제하고하면 부원전
도회와 연려청년회와 주일학교
의 세가지를 말한다. 이상의
단제는 연합회가 조직되고 모
회들이 적도 문을 열기 시작
하자 각 교회에서 즉시 조직
되었다. 그중 주일학교는 전도
목회장을 비롯하여 연수사상부
목회자들과 함께 일본말사
본을 읽고 공부하여 국어
연려청년회연합회가 조직되어
지는 현상이다. 성령연구는
회원의 三손지이 참석하면
좋은 원이다. 입원생들의 활동에
도 불구하고 회원들은 움직이
려고 하지 않는다. 재일본 한국
교회전체가 그다지 활기도 없
이 언제나 한가지로 미미한
상태에 있는것은 여기에도 그
원인이 있는가 생각된다. 또

를 사육하고 하였다. 그러나 벌써 五、六년이 지났으나 기
여기에 한가지 단점이 있었
다. 일한 동물들이 굶어들이는
하지 못하는 동시에 주일하고
교사의 대부분은 일본에서 잡
성한 자였음으로 굶어들이는
하는 것보다 일본말을 사용하
는 것이 더 편리하다는 점이
있었다. 그러나 이 단점은
신규 회원들의 비협조도 큰

다. 그리하여 현재는 어느 주
일학교를 줄은하고 일본말을
더 많이 사용하는 상태였다.
일시는 주일학교의 목적에
관하여 그 목적은 전도나 종교
교육이냐? 이 문제가 있었다.
이 때 부인전도의 연합회는

만약 그것이 단순히 일종의 전도사일 것 같으면 여러가지 기술면에 있어서 어려운 점이 있는 것이다. 또 한편 그것을 종교교육에 있다가 할 것 같으면 거기에는 일정한 교육이념이 있을 것이다. 이 교육이념이 성경의 교리에 맞지 못할 때는	결정 이래로 가정간호법 성서에 특히 가련자들을 발간하였으며 오카야마(岡山) 현에 있는 나병원을 중심으로 개척전도에 힘쓰고 있다.
종전후 Y M C A는 가장 여러 기금을 모아왔다. 종전 직후에	모약자들의 손에서

는 것이다. 그리하여 현재의 주
 일학교는 종교교육을 통한 전
 모사업이라는 해석하여 이것을
 개속하고 있으며 또 어떤 교
 회는 그와같은 자각문제를 불
 는 뜻한 심 깊은 길을 걷고 있

다. 결국 우리 재일본 동포들은 한국과 주일학교를 계속하고 있는 것이고, 대한 전도할 유일의 남은 길은 아이들을 올바르게 기르는 일 밖에 할 일이 없다는 점이다. 이것으로서 나의 수차에 걸

주일학교 세력확장에 많은 노력
을 하고 있다. (주일학교연합
회는 현재는 유념부설) 그와
함대로 먼러청년회는 추수절기
에 낮집자는 것과 같다. 현재
먼러청년회가 조직된 교회
十五、六교회나 되지만 어느
교회를 물론하고 그 움직임은
전전의 출발점이 되기를 바라
는 것이 과분한 소원일까?

日本傳道에 獻身한

있을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것이 마음문제입니다. 마음
이 잘못되고 마음에 병이
가면 내 마음을 도라보시라
그리고 지금까지 지내온 일
을 반성하면서 이미 잃으신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시
다. 그래서 새로운 깨달음을
앞길에 새 방향을 찾으신다면
나로서는 평생에 이글을 쓴
보람이 있고 큰 영광이 되겠
고 확실히 독자에게도 복이 될
것을 믿는바입니다.

美國青年

만약 그것이 단순히 일종의 전도사업일 것 같으면 여러가지 기술훈련에 있어서 어려운 점이 있는 것이다. 또 한편 그것을 종교교육에 있다가 할 것 같으면 거기에는 일정한 교육이념이 있을 것이다. 이 교육이념이 성경의 교리에 맞지 못할 때는 교회는 이것을 용인할 수 없는 것이다. 그리하여 현재의 주일학교는 종교교육을 통한 전도사업이라는 해석하에 이것을 계속하고 있으며 또 어떤 교회는 그와 같은 자각문제를 붙는 듯한 설교 같은 것을 하고 있다. 결론이래로 가정간호법 성서에 속 가련자들을 발견하였으며 오까야마(岡山)현에 있는 나병원을 중심하여 개척전도에 힘쓰고 있다.

종전후 모학자들의 손에서 진행된 Y.M.C.A.는 가장 어려운 길을 걸어왔다. 종전 직후에 는 원대한 계획도 가졌고 또 간부의 맹렬한 노력도 있었으나 대부분의 분쟁, 인재의 부족 비협력자 문제 재정난으로서 현 재는七十노인이 증을 넘어가

傳道에 獻身한

후원하는 노보다 오히려 교회들 도덕적 또는 정서적 조건과 요
 동하여 간접적으로 앞세워 서로 소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활동
 운 정치운동을 추진시킬수 있는 할 필요가 있다.

長老教會와

監理教會

東京通信(10)
 一田榮澤



K형 나는 형을 유쾌 부러 보시고 웃을지 모르나
 한 마음으로 사 하여온 한 이야기 거리로
 피는에는 형의 정다운 맛에도
 팔리지 않는 코파 심이 없다는 것이
 확실한 한가지 이유가 됩니다.
 그러나 형은 이 형식의 문제

鍾聲兄
 字部
 一九五二、八、二六 午後四時
 橫濱埠頭 尹官炳

우리는 여짜 머무는요
 기러기는 가을을 기다리는도다
 나는 심배요
 울꽃은 배로다
 울금기 어려우며
 가는도다
 주시는 은혜를 빌며
 는 비람이를 인악하노라

요요하마 부두에서 윤관병

나 과학적이며, 합리적이며, 이
 상적이며, 능률적이란것을 분명
 히 증명하고 있으므로, 한글의
 모든 인체가, 전부가 가로쓰기
 로 인쇄될때도 시간문제라고
 생각하여, 하여간 가로쓰기로 인
 쇠될것은, 필연적 사실이니, 하
 로라도 속히 실시됨이 타당한
 일이라고 확신하는 바이다.

한글의 완전한
 과학적 우수성은 전세계에 비
 할수 없다고 말하였으며,
 독일학자 에갈트씨는 "만약
 인간이 문자와 언어로서, 한
 민족의 문화정도를, 측정한다고
 하면, 한글을 가진 한국인만이

그것은 어찌 그러나 하면
 한사람은 장로 교회를 대표한
 선교사 언더우드씨요, 한 사람
 은 감리교회 선교사로 처음나
 오는 제임스 아펜젤라씨(즉말
 하는 아펜젤라박사의 부친)이
 니까요. 그러면 이때에 누가
 먼저 내리고 어느 교파가 먼
 저 우리나라에 들어온 기독을
 가지게 되었겠소?
 한국에 일차으로 들어온 신
 교(교파)는 결국 감리교회라
 니다. 그것은 그때에 두선교사
 가 서로 먼저 내리기를 다투
 다가 아펜젤라씨가 기운이났고
 몸이 날라서 먼저 내린것이아
 니라, 언더우드씨는 독신으로
 왔고 아펜젤라씨는 부인을 동
 반하고 왔기 때문에 그네들의
 예법으로(레이디퍼스트를 지
 커서 아펜젤라 부인이 먼저내
 려기 때문에 결국 감리교회가
 일차으로 들어와서 선교하였다
 는 기록을 남기게 되었답니다

K형 이 이야기는 전에들은 일이
 있는 이야기요 형도 알든지도
 모르지만 나는 감리교회사람이
 어서 그런지 모르거나와 세상
 스럽게 흥미있게 들었구만요,
 내가 여기까지 흥미 있다고
 하는것은 다른것이 아니라 교
 파가 다른 두 젊은 선교사
 세 식구가 같은 목적지를 향
 하여 그야말로 미지(未知)의
 나라도 초월이와 같은 사활을
 걸아는지도 모르는 위험이나
 라며 한달이나 할대를 계속하
 면서 장로 교회를 하고 있다
 는 것도 흥미있는 일이지마는
 그때에 그 생각을 가지고 아
 펜젤라부인이 먼저 내리게 되
 었는지 결국 내리고 보니까
 그렇게 된것을 나중에 알게되
 었지 모르거나와 좌우간 그들
 의 머리에 교파심이 뿌리박혀
 있는것만은 사실이겠지요 처
 음에나 나중에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것이 말이지요.
 그러면서 그네들은 자기 교
 파의 명예를 지키고 경쟁을
 하면서도 그렇게 예절답게 자
 언스럽게 하는것이로구나 하는
 점이 또한 그럴듯한 일이겠지
 오, 이렇게 서로 서로 존경하
 고 양보하여야 그리스도의 교
 회고 또 서로 합할수도 있지
 였

K형 우리 나라에 이 두 교파가
 먼저 들어온 이야기를 하다가
 생각이 남나만은 지난번 사
 변에 이북으로 남치되어 가신
 양주삼박사의 주장에 의하면
 원두우 독사와 아펜젤라 목사
 가 오기 일년전에 곧 一八八
 四년에 감리교선교사로 일본에
 와 있는 아펜젤라박사가 먼저
 건너와서 한국 정부에 선교를
 교섭한 일이있으니까 감리교회
 가 물론 먼저 들어왔다고 합
 니다.

K형 지금「세계교회」운동이 유력
 하게 전개되는 형편에 이런것
 이 무슨 문제가 되겠어요 일
 본서는 비록 전쟁때에 소위
 국제적으로 합동된것이아는
 좋은 일은 구하여 다시 드러
 고칠 필요가 없다고 합동교단
 을 그냥 잘 해나가는것은 매
 우 칭찬할만하고 본받을만한
 일이지요 물론 본리해 나간소
 교파가 있기가 있지요마는...

賀 展 發 報 新 督 基 祝

古鐵賣買

阪神商會

主金延文
 通名金村龍次

下關市東大坪一五一
 電話(2)四七七九番

輸出向各種衣服地
 高級洋和雜貨品
 都散賣

松山洋品店

主鄭吉用

下關市竹崎町三ノ八九
 電話(2)二八〇一番

熊本商工會議所參與
 國際纖維繁榮會副會長
 纖維品都散賣

新原商店

主裏八巖
 通名新原常正

熊本市河原町二
 電話一〇六九番